

‘교향악 축제’ 왜 광주시향은 없지?

“어, 왜 광주시향은 없지?”

지난 1일부터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2010 교향악축제’ 라인업을 살펴본 지역 클래식 팬들은 고개를 가우뚱했다. 예술의전당이 주최하는 ‘2010 교향악축제’는 이름 그대로 전국 유명 교향악단들이 총출동하는 행사. 22회를 맞는 올해는 서울시향 등 전국의 내로라 하는 18개 오케스트라가 참여했다. 올 축제의 개·폐막 공연 모두 수도권 교향악단이 아닌 대구시향과 부산시향이 맡는 등 지역 오케스트라의 약진이 두드러진 터라 광주시향의 불참에 아쉬워하는 팬들이 많다.



광주시향이 3년째 가장 큰 축제 가운데 하나인 예술의전당의 ‘교향악축제’에 불참, 아쉬움을 주고 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전국 클래식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대규모 축제에 광주시향이 3년 연속 불참하면서 광주시향의 위상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전국 유명 교향악단 총출동 행사 3년째 불참 예술의 전당과 5·18 30주년 ‘부활’ 합의 못해 전당 경직된 원칙·시향 소극적 자세 아쉬움

우려도 낳고 있다.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축제에 참여했던 광주시향의 마지막 무대는 금노상씨가 지휘봉을 잡았던 2007년이었다. 2008년에는 금지휘자의 재유족이 갑작스레 무산되면서 객인 지휘자를 찾지 못해 불참했다. 2009년엔 오랫동안 상임지휘자를 구하지 못하던 현 구지휘자 최지우가 3월 1일에야 취임, 참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올해의 경우는 사정이 좀 복잡하다. 광주시향이 올해 가장 심혈을 기울인 무대는 5·18 30주년 기념 공연인 ‘부활’. 당초 서울 공연을 추진했던 광주시향은 예술의전당 대관에 실패, 아쉽게 서울 행사를 접었다. 그러던 차에 올초 전당측에서 개막 공연을 요청, 광주시향은 ‘5·18 30주년’ 타이틀로 ‘부활’ 공연을 원했지만 전당 측이 제안한 출연자 문제 등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불참하게 됐다.
지역 음악계에서는 예술의전당측의 다소 경직

된 원칙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광주시향이 다른 작품으로 참가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구지휘자 부임 후 광주시향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클래식 팬들은 광주시향이 교향악 축제에서 타 시도 오케스트라와 비교해 어떤 음악을 들려주고, 어떤 평가를 받을지 기대감을 갖고 있던 터였다.
광주시향이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린 정기연주회에서 쇼스타코비치의 ‘혁명’을 연주했던 지난 2일, 천원환이 이끄는 인천시향은 교향악축제에서 같은 곡 ‘혁명’을 연주했고, 연주 실황은 KBS 클래식 FM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광주시향의 연주자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터라 라디오로 인연시향의 연주를 들으며, 서울 뿐 아니라 전국의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광주시향의 연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아쉬웠다.
지역오케스트라가 서울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

회를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술의전당 공연은 놓치지 아까운 무대다. 특히 교향악 축제는 ‘축제’라는 형식을 빌리고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장이다. 아무래도 지역보다 두터운 클래식 팬층을 갖고 있는 서울 관객들의 ‘귀’를 의식하게 되고, 각 오케스트라가 상호경쟁을 하면서 실력을 검증받는 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단원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된다.
또 일부에서는 ‘세 과시용’ 행사라고 폄하하지만 지역의 대외적인 이미지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이번 개막 공연을 맡은 후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한 대구시향과 대구시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행사를 진행하는 예술의전당측의 다소 경직된 태도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전당측은 출연자 선정 등에서 해당 오케스트라와 협의를 거치는 하지만 예술의전당측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 ‘축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참가 오케스트라에게 자율권을 주는 등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음악인은 “교향악 축제가 너무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는 등 문제가 있지만 지역 교향악단의 수준을 월등히 올려놓은 것은 사실”이라며 “광주시향이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교향악 축제에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 인류의 탄생

장현우 개인전 ‘소통과 교류’

12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한국화가 장현우씨가 오는 12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소통과 교류’를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장씨는 여인과 아이 등 인체의 몸을 소재로 동양화의 선과 서양화의 화려한 색이 결합된 이색 작품을 선보인다.
꽃과 나뭇잎이 그려진 여인의 몸매 마치 숲처럼 생명력이 넘치고, 아코디언과 바이올린 등의 악기를 등장시켜 자연과 인간의 소통을 형상화했다.
조선대 미술대학과 중국 로산미술학원을 나온 뒤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11차례 개인전을 열었고, 한국화동일성 회백전, 한국미술의 오늘전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광주국제드로잉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백남준 비디오아트 ‘굿바이 미스터 오웰’

10일부터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 ‘코끼리 문’ 등 대표작 40여점 선보여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고(故) 백남준(1932~2006년) 선생의 예술 혼을 느낄 수 있는 전시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 중소기업 (주)디스텍이 주최하는 ‘더지페스타 (DIGIFESTA)’(10일~6월10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다. ‘굿 바이 미스터 오웰’ (Good Bye Mr. Orwell)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디지페스타의 특별전을 통해 백씨는 ‘코끼리 문’(Elephant Gate·1995년)을 비롯한 대표작 20여점과 미공개 비디오 설치 작품 1점과 드로잉 40여점을 선보인다.
그는 짧은 시절 퍼포먼스를 하다가 당시 세계적 작곡가 존 케이지의 네타이를 자르거나, 피아노를 망치로 부수는 등 후배 작가들에게 무한한 영감을 줬지만 국내에서 그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개인 컬렉션들이 소장하고 있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작품이 대거 포함돼 있어 그의 폭넓은 작품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눈에 띄는 작품으로는 비디오 설



‘블루부다’

치 작품인 ‘이메일’(E-mail·1994년)을 꼽을 수 있다. 발표와 동시에 컬렉터가 사들여 미술평론가조차도 자세히 감상하지 못해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작품이다.
또 ‘tv 첼로’는 첼로와 텔레비전을 결합시킨 이색작품이며, ‘블루부다’는 모니터 4대를 이용해 부처상을 형상화한 뒤 빛을 통해 불상의 형태를 만들어낸 대가의 예술적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함께 출품된 드로잉은 그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체허에 등에서 생활하며 그린 그림으로 전진만만하고 순박한 작가의 심성을 느낄 수 있다.
한편 디지페스타에는 구자영, 김승영, 손봉채, 심철웅, 이이남, 이정록, 진시영, 하봉호씨 등 국내의 유명 미디어 아트 작가 30여명과 권승찬, 김현주, 박승원, 장보윤, 이준희 등 신진 작가 20여명이 참여해 축제의 장을 펼친다. 또 8일 개막식에는 백남준의 미망인 구보타 시게코(63)씨가 참석해 남편의 작품을 둘러볼 예정이다. 문의 070-7721-576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신영·손일선교수 피아노 듀오 연주회 10일 광주문예회관



김신영 손일선

오랫동안 함께 연주하며 호흡을 맞춰온 김신영(목포대 교수) 손일선(목포대 출강)씨가 피아노 듀오 연주회를 갖는다. 1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이번 연주회에서는 정통 클래식곡 뿐 아니라 재즈, 팝,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연주 레퍼토리는 정혜영의 ‘팝스 환타지’, 오이돈의 ‘2대의 해금과 2대의 피아노를 위한 한국곡의 살

사’, 불림의 ‘소나타 C 단조 1번’ 등이 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인 박남현과 이현신씨를 비롯해 노수한, 서용일, 김성광, 임민수씨가 찬조 출연한다. 티켓 가격 2만원, 1만원. 문의 011-633-321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백범 김구·안중근의사 유묵전

12일부터 화순 하니움

광주·전남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회장 안중일)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91주년을 기념해 화순(12~20일·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전시실)과 장흥(22~30일·문화예술회관 전시실)을 오가며 ‘백범 김구선생·안중근의사 유묵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조국독립과 동양평화를 외치고 1910년 3월26일 중국 뤼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안중근 의사의 넋을 기리는 의미도 함께 담았다.

백범 선생의 소박한 바람을 담은 ‘행복’과 나라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진중보국’(盡忠報國·충성을 다해 나라의 은혜에 보답한다) 등의 서예 작품을 전시한다.
안 의사는 지난 1938년 5월 중국 장사에서 저격을 받아 심장 아래 박힌 총알 때문에 생긴 손 떨림 현상이 심해져서 문예를 다하여 모시겠다는 뜻을 품고 쓰여졌고, 생전 그는 자신의 서체를 ‘총알체’라고 부르기도 했다. 문의 062-233-247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mall Meeting Big Gift' (작은만남 큰 기쁨) featuring a grid of various businesses and services. Each business card includes the name, address, and phone number. Businesses listed include: 개업·성업 안내 (Business Opening/Success Guide), 평평이상추위김&호프, 카포인트, 들고기식당, 정열식당, (주)유림, 흥서각, 조은건설, 반곡한문학당, 우정선령탕, 감미선령탕, 광일식당, 무안심심낙지마당, 인터넷가입문의, 드라이하우스쌍촌2호점, 대림학생복, 대주공인증개사, 용가촌, 황후중화요리, 미가식당, 천안문, 장만수산, 상하이, 사랑방모깃잎송편, 광주YWCA신협, 생태한마리, 나라배드민턴스포츠, 소연이녀생삼겹, 활재쟁반짜장, 노루표포인트, 아울렛DC백화점, (주)아이엔에셋보험법인, 우리공인중개사, 무지개뜨는집, 태성건설(주), 전자전기침몰, 좌훈카페광주농성점.